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5월 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4.(수) 2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5. 4.(수)	담당부서	신북방통상총괄과 구주통상과
담당과장	유성우 과장(044-203-5680) 서성태 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마선영 사무관(044-203-5681) 이기헌 사무관(044-203-5666)

통상교섭본부장, 우크라 사태 관련 「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」 참석

- 우크라이나 인도·경제 지원 현황 공유 및 향후 지원 확대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**은 5월 4일(수) 오후 9시, 앤마리 트레블리안(Anne Marie Trevelyan) **英 국제통상부 장관**이 주최하는 **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**하여 **우크라이나**에 대한 **인도·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**에 대해 논의함

○ 금번 회담은 **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**에 대한 **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**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되었으며, 우리를 비롯한 독일, 프랑스, 호주,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하였음

<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요 >

- **(회의명) 우크라이나 인도·경제 지원**을 위한 **통상장관 화상 회담**
  * Virtual Trade Ministers` Meeting to discuss support for the people and economy of Ukraine
- **(일시·방식)** 5.4(수) 21:00~23:00(한국시간), 비공개 화상회의
- **(참석국) 한국,** 영국, 우크라이나, 독일, 프랑스, 호주, 일본 등 18개국(잠정)
- **(회의진행) ①英 개회사 → ②우크라 발언 → ③국가별 발언**(3분)

□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**개회사**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**러시아를 비판**하고, **전쟁의 조속한 종식**과 **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**을 위한 **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**을 호소하였음

○ 또한, 모든 **우크라 상품**에 대한 **무관세** 적용, **다자개발은행**을 통한 **차관보증** 등 영국의 **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**을 공유함

□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 본부장은 "**한국**은 **국제사회**의 **책임 있는 일원**으로, **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**"며

○ "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**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**으로, 한국은 **생명을 위협하는 폭력**과 **반 인륜적인 전쟁**에 **반대**한다"고 언급함

□ 또한, "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**對러 금융제재·수출통제**에 참여하고 **WTO 러 규탄 공동성명** 등을 통해 **서방과 굳건한 공조**를 이어가고 있다"고 언급하며 **한국의 對러제재 동참**을 **강조함**

< 한국의 對러제재 현황>

- **(금융제재)** ①러 **SWIFT배제**(3.1), ②러 **국고채 투자** 및 **주요 은행 거래 중단 권고**(3.1)
- **(수출통제)** ①對러 **전략물자 수출통제**(2.28), ②57개 **비전략물자 수출통제**(3.26)
- **(WTO)** ①美, 英, EU 등 주요국과 **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***(3.15), ②**벨라루스 WTO 가입 중단 공동성명****(3.24)

* 각국이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추진(40개국 참여)
**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 부적격하다고 선언, 가입 절차 중단 확인(40개국 참여)

□ 여 본부장은 ①**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**, ②**65개 품목**의 **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**, ③**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·체류지원** 등 **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**해온 **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**하였으며

○ 이어서 "한국은 **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**을 **지속 확대**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"고 언급함

□ 마지막으로 "**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**을 위해 **한국정부**는 **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것**" 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마선영 사무관(☎044-203-5681),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(☎044-203-56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